“제 이름 ‘일레븐’처럼 타이거즈 V11 기원합니다”

KIA-LG전 시구 김일레븐 광주지방경찰청 경장

11개월만에 태어나 얻은 이름 덕분에 평생 추억
“윤석민의 가을 야구·11번째 우승 응원 할게요”

지난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기아타이거즈와 LG트윈스의 올 시즌 두 번째 경기. 경기에 앞서 한 여성이 시구자로 등장하자 야구장을 가득 메운 팬들이 웅성거렸다. 유명 연예인 등이 주로 하던 행사에 낯선 얼굴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어리둥절하던 팬들은 그녀의 등에 적힌 이름 ‘김일레븐’을 보며 큰 함성을 보냈다.

타이거즈는 해태시절을 포함해 통산 10번째 우승을 거두고 올 시즌 11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숫자 ‘11’을 뜻하는 영어단어 ‘일레븐’이란 이름을 가진 그녀는 그 같은 타이거즈의 염원을 담아 시구자로 선정된 셈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일레븐(여·32) 경장. 야구팬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구자로 나선 소감을 묻자 한껏 들뜬 목소리로 당시를 회상했다.

“시구자로 나선 경기에서 타이거즈가 패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2연승을 거둬 정말 기뻐요. 선취점을 허용한 뒤 엎치락뒤치락하는 내내 가슴 졸이며 응원했는데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니 제 이름 ‘일레븐’처럼 11번째 우승도 가능할 거 같아요.”

처음 시구제안을 들은 김 경장은 설마하며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야구경기 시구자로 나서달라는 전화를 지난 1월 처음 받고 장난전화로 생각했어요. 시구는 특별한 이들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게 연락이 오자 의심부터 들었어요.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3월에 기아타이거즈에서 다시 전화가 왔죠. 타이거즈 우승을 기원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시구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 시구자로 나서게 됐어요.”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더 잘하고 싶었다. 시구 며칠 전부터 친구들과 연습을 반복했다. 당일 아침에는 멋진 시구를 위해 청심환까지 먹었다. 하지만 야구장을 가득 채운 수만 명 앞에서자 떨리는 건 속수무책이었다. 마운드에 오른 순간 머릿속에 하얘져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설월여고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가끔 야구장을 찾아 응원하는 평범한 팬이었던 김 경장. 그녀가 시구자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일레븐’이란 이름 덕분이다. 특별한 이름을 지은 특별한 계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웃으며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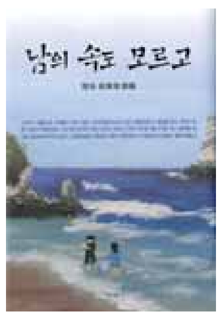
“엄마 뱃속에서 11개월 만에 태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일레븐이 됐어요. 보통 10달 만에 태어나는데 한 달이 늦어지면서 부모님이 애태운 것을 기억하려고 일레븐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일레븐이란 이름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을 기억해주었기에 다른 이름을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그녀. 시구 이후 지인들의 격려전화가 이어져 날마다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을 야구에 대한 바람도 잊지 않았다.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윤석민 선수의 가을 야구를 꼭 보고 싶어요. 2015시즌을 연승으로 시작한 타이거즈가 더 많은 팬과 함께 11번째 우승할 수 있도록 일레븐이 응원할게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60년 동반자’ 아내에게 바치는 詩
오남식 시인 회혼 기념 시집 펴내



회혼 기념으로 시집을 펴낸 노(老) 시인이 있어 눈길을 끈다.

화순 출신 오남식(85) 시인이 펴낸 ‘남의 속도 모르고’(지성의 샘)는 지나온 삶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회혼 기념으로 시집을 발간한다는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시집에는 오랜 세월 내조를 아끼지 않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다.

또한 작품집에는 문학에 대한 열정과 건강, 옛 추억, 고향 등 다양한 소재들이 형상화 돼 있어 한편의 흑백영화를 보는 정감을 불러일으킨다.

지난 2004년 월간 ‘한맥’으로 등단한 오 시인은 지금까지 ‘오뚝이 人生의 備忘錄’, ‘팽이야 별에서 놀자’, ‘웃으며 가고파’ 등을 펴냈다. 그동안 오 시인은 30년 공직(서울시청)생활을 마감한 뒤, 고향을 오가며 생가를 다듬는 일로 소일을 해왔다. 고희를 훨씬 넘긴 뒤늦은 나이에 등단하게 된 것은 “선물에는 책이 최고”라는 증조부의 말을 지침삼아 정진을 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나름으로/ 차원이 약간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라// 세상을 보는 안목/ 또한 다르기 마련인데/ 자기와 인식이 약간 다르다 하여// 오직 자기만 잘나 아는 척/ 상대방 속내도 알아보려 하지 않고/ 조화로움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험담이나 일삼는 철부지들!”(‘남의 속도 모르고’ 중에서)

대표작 ‘남의 속도 모르고’에서 보듯 시에는 인생의 연륜과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다. 평이한 시들이지만 인생의 대선배가 들려주는 말은 새겨들어야 할 경구나 잠언으로 다가온다.

오 시인은 “졸작 시집을 이렇게 내고보니 지나친 노욕으로 비칠까봐 못내 두렵다”며 “그럼에도 아직은 맑은 정신으로 문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마트 주부봉사단 발대

(주)이마트가 지역민과 희망 나눔를 위한 주부봉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선다.

광주지역 이마트 5개점은 최근 광주시청에서 ‘이마트 주부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1년동안 희망나눔 바자와 내고장 내마을 가꾸기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마트 주부봉사단은 2012년 1기 80명을 시작으로 매년 봉사단원 규모와 지원을 확대해 올해는 광주지역 4개점에 200여명의 주부봉사단을 모집했다. 또 각 구청 자원봉사센터와 해당 점포간 MOU를 체결했다.

이마트 전진홍 담당은 “최근 소외계층의 자살과 생활고 등 지역에 사랑과 희망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더 많아졌다”며,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기부와 나눔문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북구 구민상 수상자 선정

나기수씨

김양태씨

유동윤씨

우영숙씨

조규열씨

광주시 북구는 30일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한 구민생활 조성에 기여한 주민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8회 북구 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부문은 지역경제·지역사회봉사·문화예술체육·효행·장애인 등 5개 부문이다.

지역경제부문 수상자인 나기수(67)씨는 지난 7년간 광주 첨단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사회봉사의 김양태(60)씨는 문화동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면서 매년 환경미화원·경로당 등에 신발 1만 켤레를 기부하는 등 15년째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문화예술체육부문 유동윤(52)씨는 지난 2008년부터 광주북구생활체육회장직을 맡아 오면서 82회의 생활체육 사업과 151회의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효행부문 우영숙(여·48)씨는 20여년간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는 등 효행을 몸소 실천해 왔으며 장애인부문의 조규열(56)씨는 어릴 적 소아마비 판정을 받은 몸인데도, 자신만의 독특한 칠의 체계화로 ‘칠’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광주은행, 전남문화예술재단에 기부금 전달

전남문화예술재단과 광주은행은 30일 오전 재단 문화마당에서 ‘전남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남문화예술재단 제공〉

전남복지재단 서비스투자사업 알리미단 발족

전남복지재단(이사장 노진영)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알리미단인 서포터즈 15명을 모집, 최근 발족했다. 〈전남복지재단 제공〉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무등산 정화활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지부장 정병윤)는 지난 29일 ‘무등산 환경보호 캠페인’ 행사를 열고, 등산로 환경정화 활동을 가졌다.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 제공〉

광양제철소 클린오션봉사단 수중 정화활동

광양제철소(소장 안동일) 클린오션봉사단은 최근 여수시 묘도 광양포 마을 선착장 주변에서 수중 정화활동을 벌였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동창회

▲**송원고 총동문회(회장 박찬갑) 4월 정기월례회의**=4월 3일(금)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마리아쥬웨딩스퀘어 4층 에비뉴홀 062-384-7447.

▲**광주 사대부중 제4회 동창모임**=4월 4일(토)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유명회관 062-512-5574.

▲**목포고 제5회(회장 조보규)월례회**=4월 6일(월)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알림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지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12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금영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종친회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고흥군분원 정기총회**=31일(화) 오전 11시 고흥읍 남계리 고흥남중학교 옆 좋은자리 010-6244-4249.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순천시분원 정기총회**=4월 2일(목) 오전 11시 순천시 석현동 탑웨딩홀 010-3621-2105.

모집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 광주광역시지회 062-674-4008~9.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信나는 학습클리닉’**=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습관과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信나는 학습클리닉’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62-268-1388.

▲**살레시안 가족합창단(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함(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문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상무중학교(운천저수지 옆) 010-3404-3712(단장).

▲**광주시 북구 밤실피닉스 축구클럽 동호회원**=30세이상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강력 환영 010-2684-4490.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분. 062-233-0468.

부음

▲**김용례씨 별세 광균·충식·광석·미자·미숙·미옥씨 모친상**=발인 4월 1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황석환씨 별세 창규**(광주농협 상무)·**홍규**(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희숙·희영·승현씨 부친상 박은자·고은아씨 시부상 김정원·박승환씨 빙부상**=발인 4월1일(수) 광주역장례식장 특1호실. 062-264-4444, 010-8665-522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101호 故정순월 님 (여/75세)
子/子婦 : 백대선/권성희, 백대진
女/壻 : 백봉순/김영종, 백은숙/김현수, 백금순/임경섭
•발 인 : 4월 1일
•장 지 : 함평손불선영 •연락처 : 227-4385

102호 故윤성호 님 (남/69세)
子/子婦 : 윤호열/이영란, 윤건열/강영순
女/壻 : 윤미정/정철현 未亡人 : 경선희
•발 인 : 3월 31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6

301호 故정민순 님(여/88세)
子/子婦 : 고영준/양서라, 고영민/김종희, 고영호
女/壻 : 고영란/김성대
•발 인 : 3월 31일
•장 지 : 도곡선영 •연락처 : 227-4382

401호 故고의충 님 (남/74세)
子/子婦 : 고준수/최은정
未亡人 : 임복순
•발 인 : 4월 1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3

402호 故이무사 님 (남/80세)
子 : 이재욱 女/壻 : 이정민/조주연, 이홍임/박희태, 이경희/최준집 未亡人 : 황점례
•발 인 : 3월 31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14

孝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